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’17. 10. 1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산업부, 조선기자재 지원 실적 부풀리기” (’17.10.18. 파이낸셜뉴스 등) 언론보도 관련

1. 기사내용

- ☐ 산업부는 올 초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(R&D)사업화 등 2,451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,
 - 실제 집행된 예산은 계획대비 6.4% 수준인 158억원에 불과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설명

- ☐ 사업다각화 지원 예산 2,451억원은 조선기자재업 가 사업다각화를 위해 활용가능한 사업으로, 총 예산의 범위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이 이루어짐
 - 특히, 정부에서는 조선기자재 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선기자재업체에 별도 우대조건을 제공하거나 별도 트랙을 신설하여 사업다각화를 지원
 - * 사업전환자금 : 사업전환 대출한도 확대(45억원 → 70억원) 및 융자금의 30%를 조선업체 밀집지역에 우선 배정
 - * 투자보조금 : 신·중설 투자시 ‘기존사업장 유지의무’ 면제 및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으로 완화(일반업체는 10인 이상)
- ☐ ‘17년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집행 실적은 총 2,451억원 중 2,163억원으로 88% 집행하였으며, 그 중 조선기자재업체에 지원된 금액은 158억원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과 정경록 과 장 (044-203-4420)
황승완 사무관 (044-203-4422)